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4. 23 ~ 2023. 5. 13 제281호

## 한국사 교과서 ‘北 미화 가짜 역사… 왜곡 관점 수정돼야’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들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인권 침해 실상이 드러났음에도 김정은 집권 후 경제가 안정 세라든지 연이은 무력도발이 무색할 만큼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왜곡된 내용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교 검정(檢定)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대다수가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 노력’이란 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지만 김정은의 등장 이후 ‘기업 활동의 자율성 확대, 일부 산업 설비의 자체 생산을 통한 경제 안정화, 경제 특구를 확대한 개방 정책,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또, 김정은이 ‘남한 핵 공격’을 대놓고 협박하는 상황인데도 문제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사진을 실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고 편향된 사실만 서술했다.

현행 고교 교과서 9종은 2019년 11월 검정 심사를 완

료했고 2020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전 대통령은 2019년 여름부터 북측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 “깍먹은 개”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도, 교과서 검정을 하면서도 북을 미화, 왜곡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현행 교과서 중 천재교육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외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산업 설비를 자체 생산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조금이라도 체제가 이완할 조짐을 보이면 통제를 바로 강화했다. 2017년 핵과 탄도미사일 폭주를 하면서 북한 경제는 고꾸라졌고 최근 황해도 지역에선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이다.

또한 미래엔은 “최근에는 신의주 등에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 수용한 경제 특구를 확대하여 개방 정책을 펼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면서 평양의 고층 건물 사진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들 교과서들은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을 중요한 변화인 것처럼 서술해 북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미북 회담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 라인(금지선)을 이미 넘어버린 정반대의 현실에서 고등학생들은 거꾸로 된 역사, 가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도 |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잠언 10:9) 굽은 길로 행하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김영돈 선교사 (레바논)

##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 열방에서 다음세대를 섬긴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다 인생의 고비를 겪으며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됐다. 이제

는 선교지에서 젊은 다음세대 선교사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 현장을 섬길 꿈을 품게 됐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들은 꿈을 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

종하는 김영돈 선교사의 삶으로 초대한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5)

##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그중에 건강하고 근육질인 사람은 십장(十長)이 될 수 있습니다. ‘노가다 십장 권세’라는 말이 있듯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십장된 사람의 생활은 관찰했습니다. 애굽의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적당한 눈요기가 즐비한 애굽의 생활도 꽤 살 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오늘날의 세상을 예표한다고 본다면 똑같

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태어나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중에 좀 성공하면 사탄의 종노릇으로 의기양양 권세 부리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부럽지 않기에 영원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짜릿하고 달콤한 맛, 끈적끈적한 유혹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죄에 순응하고 적당히 위장하고 양심을 속여 가며 살아가기에 세상도 괜찮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저 이 땅에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기에는 지금의 세상도 지낼 만한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시퍼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운명 또한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냥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일러스트=김경선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며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흥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몸은 구원받았으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노예였습니

다. 이것이 노예근성이요, 끔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먼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시-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 레바논 교회가 난민에 희망을



▲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 제공: 임광야 선교사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촌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였다. 카메라를 들자 한 아이는 개구진 얼굴로 반가워하며 맨 앞으로 달려온다. 자연스레 '브이 자'를 그리며 해맑은 웃음을 짓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주변국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540만 명을 넘어섰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150만 명이다. 이들 중 약 90% 가정은 극빈곤층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재로 레바논 경제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시리아 난민들은 더욱 취약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레바논 복음주의 교회들이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한 시리아 난민 여성은 가족에게 줄 음식 꾸러미를 받기 위해 교회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레바논 성도를 보며 그녀의 삶이 변화됐다. 그녀

안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예배의 기쁨이 넘쳐났다. 메마른 땅과 같이 바싹 말라버린 이들의 영혼 안에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8-19) [GNPNEWS]

## 중국 위구르 목회자, 15년 형기 마치고 석방

외국인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위구르족 목회자 알리무장 이미티(Alimujiang Yimiti) 목사가 최근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알리무장 이미티는 1995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중국 신장 지구 카슈가르시에서 가정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며 위구르족을 섬겼다. 그러다 2007년, 중국 당국은 사업을 이용하여 카슈가르시에 기독교를 들여오려 한다는 혐의를 알리무장 목사에게 처음 제기했다. 그는 2008년 1월 12일, 분리주의를 선동하고 해외 조직에 국가 기밀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구금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 측은 “2007년, 알리무장 목사가 중국 당국과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미국인 동료와 나누는 대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중국 당국은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 회부했지만 그는 그동안 계속 구금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족은 두 차례의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2009년 8월 6일 카시 지구 중급 법원은 알리무장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그해 10월 2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리무장 목사의 아내와 그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선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항소 노력은 성과가 없었다.

현속 폴리 한국VOM 대표는 “알리무장 목사가 재판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대대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과 소수 민족 사람들이 중국의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리무장 목사의 사건은 그러한 수감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VOM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수감돼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현속



▲ 위구르족 목회자 알리무장 이미티. 출처: 한국순교자의소리

폴리 대표는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을 때보다 석방된 후에 기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전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풀려난 뒤에는 평범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되면, 더 심한 압박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露에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 2만 명 중 31명 구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수개월 전 강제로 러시아에 끌려갔던 우크라이나 어린이 2만 명 중 31명이 구조돼 지난 7일 부모와 다시 만나게 됐다고 지난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크림반도 여름 캠프에 쌍둥이 자매와 함께 참가했던 13세 소녀 다샤 라크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관리들에 의해 끌려갔다고 밝혔다.

러시아로 끌려갔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부모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간 러시아의 완악함을 꾸짖어주시고, 돌이켜 생명을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 헝가리, '소아성애방지법' 도입... 성교육에 동성애 묘사 금지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 헝가리가 학교 성교육과 영화·광고 등에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한 '소아성애방지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 차별법이라며 작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소송에는 독일·프랑스 등 EU 15개국도 참여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헝가리를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나라들도 정욕을 따르는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주소서.

###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0년보다 3배 ↑ ... 60대 이상 자살률 높아

우리나라 2022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60대 이상 자살률이 평균(2021, 10만 명당 26명)보다 훨씬 높게 집계돼(60대 28명, 70대 42명)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1일 밝혔다.

자살과 고독사의 위험 가운데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고민하며 돌아보게 하소서. 정부가 홀로 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속히 마련하게 하시고 교회가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4월 24일 ~ 2023년 5월 13일

**4월 24일 ~ 4월 29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4.24~26(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4.24~2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25(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4.26(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4.27(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4.28(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28-29(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6교회 진행중.

**5월 1일 ~ 5월 6일** 5.1~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2(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5.3(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5.3,4~6(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5.4(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5.5(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5(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5.5(12시)~6(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4교회 진행중.

**5월 8일 ~ 5월 13일** 5.8~10(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5.8~12(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8~13(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5.9(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5.9,12(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5.10(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10(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5.13(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그 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美 캘리포니아 기독교인, 성경적 가치 훼손 법제도와 전면전

**-급진좌파 미국 의원들, 변태적 성교육 가능한 악법 추진  
-학부모들, 공립학교의 왜곡된 성교육 불참 권리 확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악법들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의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악법 반대 운동의 추진 내용이 일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 Next)는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법안과 치열하게 싸워온 내용과 이미 통과된 악법을 소개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TV넥스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10년간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법안들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악법들이 통과된 후 다음세대에 끼친 악영향은 견잡을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공립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태적 성교육은 이런 법안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악법들이 캘리포니아 입법부를 통해 지금도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나온 학부모 권리에 관한 법(SB 673) 발의안은 지난 10년 간의 사악한 법안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어도 그동안 파괴된 영역들을 보수하는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다. SB 673은 공립학교의 무분별한 변태적 성교육을 절제시킬 수 있는 학부모 권리(Support Parents Rights)를 되찾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이에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공립학교의 변태적 성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코드(California Education Code) 섹션(Section) 51240(a)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도덕관과 맞지 않는 교육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변태적인 성교육이나 비도덕적인 교육으로부터 빼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거절(Excuse)' 혹은, '불참(Opt-out)' 할 수 있다.

또한 미연방정부 교육코드(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20 U.S. Code § 1232h에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뉴욕, 오레건, 시카고, 하와이 등 대도시에는 학교들이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경우, 정체성을 교묘히 왜곡되게 유도하는 부적절한 질문들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설문조사

로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뺄 수 있다(Opt-Out)고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공립학교 성교육 관련 법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TV넥스트는 이러한 법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 미성년자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법 SB 5439(2009~2010) :

마크 레노(Mark Leno) 민주당 의원이자 동성애 운동가가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동의에 관한 법안이다. 이것은 12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학교나 다른 어른 상담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법안은 '노숙자 학생'이나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국 공립학교에서 주입, 세뇌시키는 친동성애 교육을 더 넓히기 위해 사용돼 왔으며, 친동성애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교무실에서 따로 면담을 받았다.

## 게이 전환 금지 및 성적 지향 변화에 관한 법 SB 1172(2011~2012) :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게이 전환 금지 및 성적 지향의 변화에 대한 법안이다. 이것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상담을 통해 정상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성애자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던 모든 상담(주로 기독교상담)과 치료를 차단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히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정상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상담을 절대 금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앞으로 어떤 '성별'에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SB 1172에 어떤 성적 취향이든 (소아성애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이러한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숫자적 열세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SB 1172는 2013년부터 발효됐다.

##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 AB 499(2011~2012) :

앳킨스(Atkins)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안이다. 이것은 부모의

허락이나 부모에게 알릴 필요 없이 12세부터 성적인 병, 또는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의사의 소견에 따라 HPV 백신이나 가다실(Gardasil) 백신(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이런 사실을 학부모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 AB 1266(2013~2014) :

톰 암미아노(Tom Ammiano) 민주당 의원이자 동성애 운동가가 발의한 것으로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이다. 해당 법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유치원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감정적·심리적인 경우까지 포함하기에, 보수층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한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 여러 형태의 부모를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법 SB 274(2013~2014) :

마크 레노(Mark Leno)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가족법: 친자 관계: 자녀 양육권 및 지원에 관한 법이다. 법적으로 3명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아이들의 부모가 엄마, 아빠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칭으로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권리 역시, 한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형태의 부모를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 젠더 쿼어 및 출생증명서에 관한 법 AB 1951(2013~2014) :

지미 고메즈(Jimmy Gomez)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젠더 쿼어(성소수자) 및 출생증명서에 관한 법이다.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입양할 때, 출생증명서에 법적으로 자신을 엄마로 기입할지, 아빠로 할지, 아니면 '부모(parents)'라고 할지 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입양해온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정해진 성별까지도 동성애 부모들이 맘대로 적을 수 있다.

## 관공서 1인용 화장실 성중립 운영에 관한 법 AB 1732(2015~2016) :

필립 텅(Phillip Ting)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관공서 및 상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독교 학교. 출처: americaeducators.com 캡처

업빌딩 내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발효됐다.

## 종교기관의 보조금에 관한 법 AB 1888(2015~2016) :

토니 앳킨스(Tony Atkins)와 수잔 에그먼(Susan Eggman) 민주당 의원이자 동성애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마크 레노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기관의 보조금에 관한 법안이다. 학생들과 학교가 주,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Cal Grants)이나 장학금(scholarship)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biological sex)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외 50여 개가 넘는 성별들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반대로 수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법안이다.

## 기독교 학교 보조금에 관한 법 SB 1146(2015~2016) :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마크 레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기독교 학교 보조금에 관련된 법안이다. 그동안 공립학교에서도 미국 헌법상 주어지던, '종교적 면제(Title IX exemptions)'를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동성애, 트랜스젠더만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요구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즉 신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학생들이 받던 정부의 보조금(Cal Grants)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이 여러 번 수정됐으나 여전히 정부가 의미하는 도덕적 행위 정책(moral conduct policies)을 캘리포니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왜곡된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건법 AB 329(2015~2016) :

셜리 웨버(Shirley Weber)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건법이

다.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과 함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에 관한 정보를 교육시킨다며 7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 성교육 시간을 학습시켰다. 이 법은 2019년에 개정됐다. 주정부 측은 최근 통계에서 9~12학년 중 성관계를 갖는 학생이 32%라며 더 이상 성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종전보다 한층 구체화된 피임 방법, 성정체성, 성적 취향과 육체 관계 등에서 안정성과 실효성 등의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 동성애, 그룹 섹스파티 등 포르노 수준의 성관계 내용은 물론, 일부 성교육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심지어 자위 도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바나나, 오이, 당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 법안은 가장 반기독교적이며 친동성애 운동단체들이 후원 및 지지를 할 뿐 아니라, 성교육 내용을 만드는 것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주목할 단체들: 캘리포니아 ACLU(ACLU of California), 생식 정의를 위한 캘리포니아 라틴계(California Latinas for Reproductive Justice), 캘리포니아 평등(Equality California), 가족 계획(Planned Parenthood).

##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법 SB 18(2017~2018) :

리처드 판(Richard Pan)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권리 장전이다. 2015년에 민주당에 의해 통과된 SB 277에 의해 이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백신 주사 맞는 것으로부터 빼낼 수 없도록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긴지 얼마 안되어, 이 법안은 한 발짝 더 나갔다. 정부가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대신 자녀들의 건강, 안전, 교육, 사회활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3세 자녀를 아직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는데, 정부에서 강제로 이 법에 의해 3세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GNP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김영돈 선교사 (레바논)

### • 1면에 이어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엔 목사님들이 참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시느라 어렵게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일을 하시는 바람에 혼자 목회를 하셨어요. 저도 지금은 혼자 선교지에 있고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죠.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 모태신앙에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건이 있으시겠지요?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나갔어요. 세상친구들과 어울리다 23살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때는 불신자처럼 살면서도 교회는 계속 출석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의류 사업을 38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는 의류 커팅공장을 6년간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해서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옷을 디자인해서 미국 체인스토어와 백화점에 20년 넘게 납품을 했어요. 그러다 중국, 과테말라, 베트남 등에서 옷을 만들어와 납품하기도 했죠. 꽤 오랫동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됐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더군요. 회사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6년이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때까지 새벽예배를 나가본 적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자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무슨 기뻐니까? 좀 있다가 일 나가야 되는데.”라며 대꾸도 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소원인데 한 번 하자.’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강권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갔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눈을 떴어요. 5분, 10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났더군요. 제 옷은 다 젖어 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담배 끊고 세상일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거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요. 나중에 보니 술, 담배가 끊어져 있더군요.”

###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주님을 만났어요

-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이후 신앙생활이 궁금합니다.

“한 집사님이 프레스디아스를 권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용서를 구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1998년도에 우크라이나로 처음 선교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군요. 이후 교회 선교부에서 15년 넘게 섬겼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라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됐고, 이후 단기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또 전도폭발 사역도 15년 정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은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조절이 용이했죠.”

- 신앙인으로서 사회 생활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장인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생산 날짜가 차질이 생기면 거래처들과 만나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정이 선교 일정과 매번 겹쳤어요. 그럴 때면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선교 일정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오면 더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당시에 수입의 십일조만 가지고 생활했어요. 나머지는 현금하고요. 그러다 1997년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그때 주님은 제가 믿음을 쓸 수 있게 하셨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가 됐는데도,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십일조를 먼저 냈죠. 그때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에 걸맞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더군요. 감사하게도 회사는 2000년도에 다시 회복됐어요.”

- 말로는 짧게 정리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신앙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2009년에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실체가 된 복음이 아니면 내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교회로 파송 받아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는 미전도종족 선교

를 하고 있던 때여서, 10년 동안 인도나 라오스 등지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7~8년을 섬겼을 때, 다시 갈급함이 생기더군요. 제 존재적인 음란의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회개하고 금식해도 안됐어요. 급기야 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뭘까 고민했어요. 그때 서재에서 복음학교 때 필기했던 노트를 꺼내 보게 됐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중보기도학교, 선교관학교, 복음사관학교 소개가 있더군요. 그때가 복음학교 하고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복음사관학교를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을 받고 35년 동안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 신앙의 한계를 느끼며 다시 복음 앞에 서다

-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네요. 훈련은 어떠셨어요?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 하나님께 집중하러면서 대화를 못하게 하더군요. 같은 이유로 핸드폰도 반납했어요. 순간 잘못 왔다고 생각이 들어 돌아가야겠다며 짐을 싸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기도라도 한 번 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로 ‘내가 너 부른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6개월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에서 운영하는 중보기도학교를 섬겼어요. 그때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뜨거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였는데, 제가 중보기도 모임도 만들고 말씀기도 모임도 만들고 교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집에서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6개월은 잘 버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게 힘들더군요. 그때, 한국에 있는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라는 곳에 대해 듣게 됐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합숙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지체들과 함께. 제공: 김영돈 선교사

- 온전한 믿음에 대한 갈망이 무척 컸던가 봅니다. 공동체 훈련이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사랑에 대해 알게 해주셨어요. 작은 방에 4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20대, 30대, 40대와 60대인 제가 함께 생활했어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새벽에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교회에서 장로로 심방 다니고 교인들과 은혜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내가 사랑한 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다음부터 지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졌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교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레바논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시면서 현장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레바논으로 선교에 헌신할 마음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인도도 가고, 미전도종족 선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알겠다고 했어요.”

###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아 8:6)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 그러면 곧바로 레바논으로 떠나셨나요?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됐어요. 마침 헤브론원형학교 졸업생들이 단기선교를 와 있

더군요. 그리고 몇 가지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레바논에서 학생들의 가디언 선교사로 섬기게 됐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만나게 해주시고 일을 하나씩 진행하게 해주셨어요. 집을 얻는 것도 주님이 인도해주셨고, 학생들이 침을 맞아야 되면, 침 놓는 분이 바로 연결됐어요. 이발을 해야 됐는데, 다음날 이발하시는 분을 만나고, 김치를 싸주시는 선생님도 만났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어요.”

- 실버 선교사로 현장에 갔을 때 어려움이나 유익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다 보니 언어적 능력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나름의 역할이 있더군요. 우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허락된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만나서 교제하고, 선교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다른 분들 사역 도와주고 기도하는 게 일이 더 많았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과 섬김으로 행복과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 레바논을 위한 기도제목은 나눠주세요.

“레바논은 부족사회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만 잘 살면 돼요. 무슬림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자기 부족 위주여서 연합이 잘 안돼요. 이 때문에 대통령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 대통령이 나와서 연합을 시키고 정치,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IMF에서도 도와주려고 해도, 연합이 안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NGO도 손을 거의 댄 상태고, 그나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곳에 쫓려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분위기는 사실 삭막해요. 나라가 무너졌으니까요. 3년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임금이 100불 정도고 관공서에는 사람이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주차장도 없죠. 군인들은 시리아나 요르단 용병으로 나가는 실정이에요. 군인 월급도 60불 정도거든요. 레바논 청년들은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어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하는 레바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오히려 시리아 난민들에게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GN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 “네가 생명의 화수분이 되어라!”

저는 아버지의 생신날 태어났습니다. 생일선물처럼... 하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못하고 헝가리에서 통곡하는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화수분이 되어라!”

한번은, 우리 급식 장소에 늘 왔던 노숙자 한 명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알코올이 문제였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너지 페렌츠’의 장례를 치르고 나오며, 그의 친구 산도르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십 대에 광부였는데, 그의 비번 날 광산이 무너져 동료들이 다 죽자, 괴로워하다...” 트라우마!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심리적 반응.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을 술로 달래다 쉬한 삶에 생을 마친 것입니다.

헝가리에는 빈소가 공원묘지 안에 있습니다. 유골을 담은 조그만 항아리 앞에 사진을 두고, 참석할 여덟 사람이 동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숙자 친구 두 명이 종이에 고별사를 적어 와서 읽고, 한국인 선교사인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헝가리어로 전합니다.

“사랑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고전 15:58)

예배가 끝나자, 묘지 직원이 와서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검은 차에 싣고 천천히 갑니다. 우리는 뒤따르며 납골당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축도를 하고, 납골당을 봉안한 후, 사회복지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놓고 끝났습니다. 가족 한 명 없이 치른 장례식이었지만, 친구 덕분에 이런 마지막 예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의 죽음 앞에, 희망과 현실 앞에, 몸부림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 후, 우리는 각자가 화수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 생명의 화수분으로!

‘화수분’은 써도 줄지 않고 계속 나오는 공급원을 말합니다. 원래 ‘화수분(河水盆)’으로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목사이자 작가였던 늘봄 전영택의 소설, <화수분>을 아시지요? 너무 가난한 행랑아범 화수분이 다친 형을 도우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애를 업고 찾으러 갑니다. 추운 겨울 부부가 고개에서 서로 만났지만, 꼭 껴안고 죽어 있습니다. 거기 시체를 두드리고 있는 어



▲ 헝가리 부다페스트. © 복음기도신문

린 애를 보고, 지나가는 나무장사가 애만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수분”이란, ‘삶-죽음-생명’의 순환으로, 부활의 신비적 상징입니다. 저는 문학 석사 논문을, ‘화수분’의 원형탐구로 썼습니다. 그 모티프를 성경의 “사라브트 과부”(왕상 17:8~16)와 “오병이어의 기적”(요 6:1~15)에서 찾았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주일이면, 저희 ‘소금과 빛 개혁신교회’가 20주년을 맞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요일

과 장소가 다른 ‘거리의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사이 먼저 소천한 식구들, 함께 밥을 먹었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라우라’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어머니도 만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또,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에서 통곡했지만 한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잘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동안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예!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살겠습니

다.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화수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원한 이름으로!” [GNPNEWS]

헝가리=김흥근·서명희 선교사

## 복음의 능력

### 당연한 것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연하게 자신의 종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반적 원리들에 의해 사역자를 도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이는 사역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사역자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지만, 동시에 우리와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사역자의 막중한 직무와 책임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교인들의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힘든 기도의 씨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대가(大家)가 되었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 세상 바로보기

### 대구시, 베토벤 합창 ‘신’이란 단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연주 금지

대구 시립예술단이 베토벤의 대표 교향곡 가운데 하나인 ‘합창’을 종교편향적인 곡이라는 이유로 연주할 수 없게 됐다. 가사 중에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대구시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종교화합심의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은 한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예술을 종교로 접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 연주라든지 오페라 연주도 종교적으로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2008년 종교편향 시위에서 불교계가 얻은 전리품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편향신고센터의 영향이다. 이곳에서 종교편향이라고 결정하면 모든 지자체가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

유가 있다. 이것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 약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봐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종의 자유, 전도, 종교 행사, 예배, 종교 의식을 여러 사람과 사적으로 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며,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가 갖는 의미다. 가령,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했다. 이것이 공적으로 여러 사람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에



출처: Samuel Sianipar on Unsplash

해당된다.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가 보장하기로 한 인권의기 때문에 그것에 인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관용하도록 인권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참지 말고, 그런 종교의 자유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500년 전 유럽의 종교 개혁가

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가 헌법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GNPNEWS]

S.Y.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10)

#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땅에 속했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고 나 중심의 가치가 예수 중심의 가치로 바뀐다. 불의와 거짓을 좋아하던 존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던 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가치관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하늘 가치, 영의 가치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산 생명의 신앙인으로 살게 한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복음을 만나면 거듭난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린다. 이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생명 걸고 부딪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것이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이 사회와 역사와 우리 조국을 바꾸게 될 것이다. 열방을 바뀌낼 것이다. C.T. 스테드. 그는 영국 귀족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다. 게다가 크리켓 주장 선수였다. 젊은이 중에 그런 스타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3장

“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  
”

16절을 농담처럼 여겼다. 어느 날 무명의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 그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캠브리지 7인은 영국 사회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일러스트-이예원

그때 스테드는 유명한 고백을 남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밖에서 본 이슬람, 무슬림 이해하기

김종일 저  
리비사 북스  
2022  
176쪽  
1만 5000원

우리의 이웃이 된 30여만 명의 무슬림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이들은 왜 왔을까? 우리 민족을 통해 잃어버린 이슬람의 역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 이 책을 통해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추천사 중에서-

“밖에서 본다”라는 표현에서 저자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이슬람 신학과 전통을 공부한 것이 아닌데, 혹시 남의 종교를 곡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보면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홍(전 이집트 선교사)

## 복음기도신문 아이폰 앱 공개

복음기도신문 아이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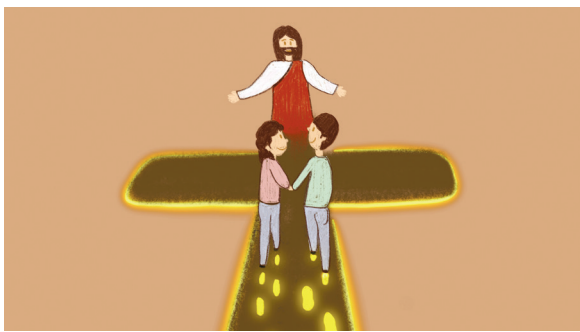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 하나님께 구하고 자족하는 삶을 통한 기쁨

스트레스를 맘속에 쌓아둔 채 몇 년 동안 일을 하며 우울감 속에 번아웃의 상태를 맞이했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 안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졌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차라리 차가 전복되어 사고가 나면 회사에 안 갈 수 있을텐데 생각하며 늘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 문득 이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둘 마음으로 내려놓으려 했지만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 휴직이 허락되었다. 가족의 생계는 오직 나의 힘으로만 해결되는 줄 착각하고 늘 자아연민하며 살았다. 일정한 수입으로 살다가 월급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빚을 지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 매일의 만남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어느 날 아들이 음료수를 너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아내가 하나님께 구해보자고 아이를 절제시켰다. 부모님은 “음료수가 얼마 한다고...” 하며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워 하셨다. 살



일러스트=고은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하루는 아내가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러 갔다. 지인은 일이 끝나고 고마운 마음에 집사람을 차로 데려다 주면서, 잠깐 편의점에 들러 우리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 음료수 3캔을 사왔다. 아이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아이와 함께 구한 그 기도를 그렇게 정확하고 넉넉하게 공급해주셨다.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과 그 외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마이너스 통장의 빛은 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남아 있던 빛을 다 청산하게 해 주셨다. 이런 형편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는 재정이

지도 채워주셨다.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목회자 복음학교 섬김이로 참석하게 됐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와 8살 아들만 두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은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나를 복음 아는 자에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 내 인생 처음 맞는 아프리카에서 인생 최초의 아웃리치, 내 인생 최초의 복음학교 섬김이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셨

다. 말씀대로 복음에 참여한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내 교회,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온 열방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급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1년을 보내게 됐다. 돈 버는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현실의 두려움에 부딪혀 안될 것 같았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게 하셨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삼하 5:24) 너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복직을 준비하게 하신다. 내 안에 결론된 이 복음은 새로운 삶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변화될 내 삶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신 이 복음이 결론이기 때문이다. [GNPNEWS]

윤군도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하나님의 음성인가?’ 정신적 문제 염두에 두어야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2)

환각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그것을 인지하여 생각하는 증상이다. 그중, 환청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한다. 환청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대화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혹은 외설스러운 말이 들리기도 한다. 또한 흔하게 “너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고 행동을 지시하는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도록 해서 다치지 않게 될 거야.” 이런 환청을 듣는 사람도 있다. 아무런 정치와 관련이 없던 무직인 사람에게 “대통령 출마하면 당선될 거야.”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처음에는 잠깐씩 들리거나 또 하루에 몇 번씩 들리다가 점점 심해지면 하루 종일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게 진짜구나. 현실이구나.’ 하면서 소리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모르는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으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경우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음성을 들었다고 여긴다. 또는 마귀의 음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사무엘처럼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음성이 굉장히 생생하게 들렸다면 어떠한 계시의 음성으로 곧바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많은 경우는 환청과 같은 정신증적인 증상인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속> [GNPNEWS]

## 부흥을 위하여

# 한류 문화, 북한 체제 흔들어... 北 정권, 한류와 전쟁 선포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북한 내 한류 문화와 정보의 유입은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됐다.

지저스아미 4월호에 소개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의 기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보내는 전단지 빛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가 벌어지면서 체제 불만이 폭발할 때였다. 휴전선 최정예 군단

에 배급이 중단될 무렵 한국 국방부가 전단은 물론 라면, 세면 비누 등 물자들을 살포하자 인민군대의 동요는 매우 심각해졌다. 평양의 대학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라디오로 남한의 방송을 듣는 반정부 성향의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때부터 한국 노래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 정권의 정당성과 남한의 청년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1989년 임수경의 방북을 허용했지만, 북한 청년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복장과 행동과 말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생활 수준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환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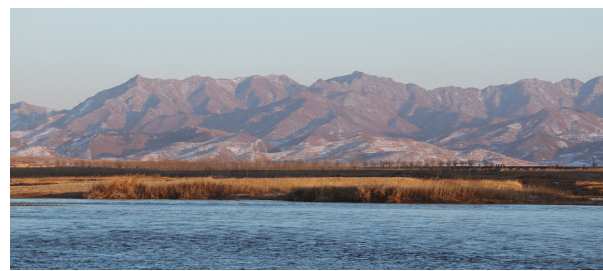
대북 정보유입은 200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들이 등장, CD 재생기에서 USB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SD카드가 나오면서 정보유통이 더 빨라졌다. 여기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확산된 밀수는 문화 콘텐츠 유입을 가속화했다. 게다가 문재인 전 정부가 대북인권 정책의 역주행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북한인권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고화질의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공급하고, 자발적인 내부 수요와 일부 상인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USB 유입에 가세하면서 북한 전역은 순식간에 한국

드라마가 점령하게 됐다. 일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복음 콘텐츠를 USB에 담아서 북한 내부에 유포시키면서 새로운 북한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한류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문재인 정권이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패를 부렸다. 김정은 정권은 한류 유입을 막기 위해 ‘조선어 보호법’ ‘반동 문화 배격법’ ‘국가 비밀보호법’ 등을 연이어 제정하면서 한류를 접하거나 정보를 유입시키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벌이고 있다. [GNPNEWS]

## 北 주민 수십 명 中 밀입국하다 발각

최근 북한 주민 수십 명이 불법으로 중국에 입항하려다 중국 변방대에 발각돼 현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전했다. 이는 대북제재로 새로운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 이달 초 야간에 선박을 이용해 수십 명의 북한 주민을 라오닝성 남쪽의 한 항구로 불법 입국 시키려다 중국 변방대에 발각된 것이다. 북한에서 배를 출항시키려면 보위부, 국경경비대 등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획적으로 자국 인력을 중국에 밀입국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에 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변방대에 붙잡혔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중국 측과는 합의되지 않은 인력 수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밀입국한 이들은 정식으로 채용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는 IT 인력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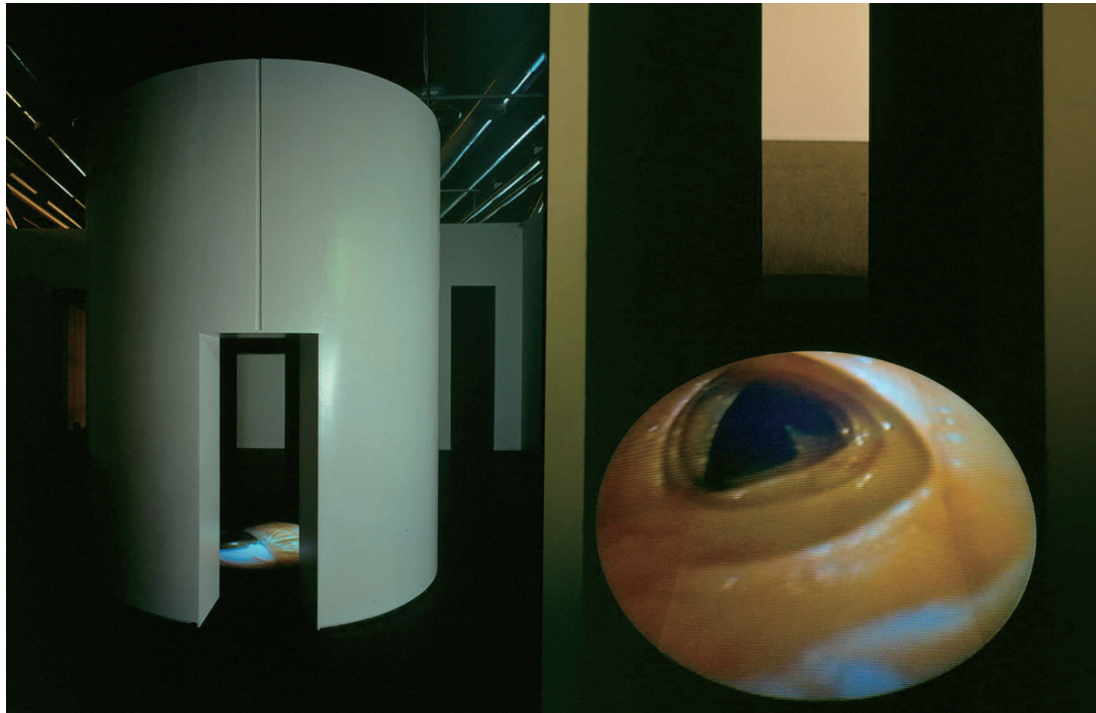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모나 하툼의 <이방인 무리(Corps Étranger)>(1995)

##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모나 하툼(Mona Hatoum)은 레바논 출생의 영국인 예술가로 팔레스타인 부모 사이에서 자랐다. 레바논 출생이나 레바논 국적을 가지지 못했고, 이슬람 문화 아래 성장했으나 아랍의 가부장제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1980년대 말, 그녀의 초기 작품은 아랍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 그런 하툼의 작품을 세계 무대로 데뷔시킨 작품이 1995년의 <이방인 무리>이다.

<이방인 무리>는 한 사람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원통형 설치물로 내부로 들어가면, 그 로테스크하고 기이한 영상이 상영되는데, 바로 작가의 몸 안팎을 내시경으로 촬영한 영상이다. 관객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 하툼의 몸 외부로부터 시작해, 내부로 난 길(소화, 배변, 생식 통로)을 따라 그녀의 몸속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를 통해, 하툼은 여성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부분



부분 나누어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배적이고 권력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원통 속 영상은 우리의 시선에 의해 조각난 한 인격이며, 정작 불편하

야 할 것은 징그러운 영상이 아니라, 왜곡되고 폭력적인 우리 시각임을 지적하였다.

하툼의 의도는 이러하나, <이방인 무리>를 보면 은밀하게 숨겨

져 있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 하툼의 신체 내부를 보며 느낀 불편함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어둠이 드러날 때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

온다. 직면하려는 용기를 무력화하는 이 두려움은 '혼전 성관계' 대신 '속도위반', '외도' 대신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죄를 축소하거나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드러난 것마다 빛"이라고 가르친다. 내면의 어떠한 더러움과 어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드러난 것을 가감하지 않는 직면의 힘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두려웠던 수술대가 구원과 부활의 심판대로 바뀌는 빛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든 빛이다. 주님은 죄를 잘 덮어줄 능력자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사하실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모나 하툼, <이방인 무리(Corps Étranger)>, 1995, 영상 설치물, 퐁피두 센터 소장, 프랑스 파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3. 3. 23 ~ 4. 10 (가나다 순)

#### 개인

김광희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형숙 김혜신 박경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윤미자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준훈 이주선 이진희 장근혜 장진 조명숙 조형광 존/정희 최근희 최임주 최점옥 홍고집 황일문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시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목자교회 문광교회 순회신교단미주지부 쉐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에그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땅속에서 잠자던 물이 솟구쳤다

마침내 깊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물이 솟구쳤다. 기계로 땅을 판지 반나절이 지나 한밤중이 되어 서야 물이 터져 나온 것이다.

킬리만자로 산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품은 땅이기에 쉽게 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는 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현지 선교사님의 7년 기도의 응답이 '다음'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 해주셨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물줄기에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라는 무명의 작가가 남긴 생애 마지막 기도 같았던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탄자니아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셨다. 2년 전, 오랜 투병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생면부지의 초신자 작가의 가족으로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헌금을 받고 난감했었다.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나로서는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필요로 하

는 곳은 많았다. 굶주린 아이들의 한 끼의 양식이 될 수도,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난민 아이들의 작은 거처의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 헌금은 한 젊은 작가의 유산이었다. 좀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보내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의 헌금은 어디에도 흘러가지 못하고, 통장에서 1년을 넘게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자니아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 탄자니아?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평소에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은 나라였다.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산과 세렝게티 공원이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라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탄자니아에 무지했던 나에게 갑자기 탄자니아라니! '잘못 받은 마음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을 주셨으니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기도했다. 아주 오래전 스쳐 지나가듯 만났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계



▲ 새로 설치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탄자니아 아이들. 출처: 김봄 제공

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메일을 보냈다. 선교사님께 답장이 왔다. '오랫동안 동역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탄자니아행을 준비하던 차, 선교사님의 또 다른 오랜 기도 제목이 우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 가뭄 때문에 받아놓은 빗물은 바닥이 닳고, 석회가 많은 냄새나고 더러운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로소 오랫동안 통장에 갇혀 있던 헌금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하 80m의 우물을 파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방송작가 신우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그녀의 헌금이 마중물이 된 것이었다. 순식간에 우물 파는 데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고,

나는 그 헌금을 들고 탄자니아로 향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탄자니아 시골 마을에서 묵묵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다.

한잔의 물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얼굴도 모르는 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받고 당황했던 그때, 오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으리라 짐작도 하지 못했다. 무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찬란한 존재였던 한 작가의 마중물 같았던 헌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만나, 강을 이루고 탄자니아 작은 마을의 생명수가 되었다. 이 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GNPNEWS]

김봄(본지 통신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